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분석

이진동*, 이상한

서울양천경찰서 목2지구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Analysis of the Case with Serial Killer Young Cheol Yoo

Jin Dong Lee*, Sang Han Lee

Yangcheon Police Station, Mok 2 Patrol Division,*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bstract – Serial violent crimes have occurred more frequently. Additional attention is paid to relevant areas in which discussions has also increased. This study analyzed Young-cheol Yoo, serial killer case. Two of Yoo's crimes were studied for modus operandi. The cases selected were the premeditated break-in homicide of upper-class elderly people and the impulsive homicide of the Hwanghak-Dong street vendor. Crime motives, targets, times, places, means and methods were analyzed. Profiling techniques in Young-cheol Yoo cases were evaluated and the problems discovered during investigation were discussed.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of the serial killer Yoo cases. Yoo exhibited a hatred toward the rich, the elderly, and women as well as a fear of diseases and death. Yoo's crime targets were the elderly residing in wealthy houses, street vendors and prostitutes. The numbers of victims were: 3 men and 5 women victims in 4 homicide cases involving the elderly residents in wealthy houses; one man in 1 street vendor homicide case 11 women in 11 prostitute homicide cases, so total 20 persons were murdered in 16 cases. The time of the crimes were between 10 am and noon in the homicide cases of the elderly and very late at night or early in the morning in the prostitute homicide cases. Means and methods facilitated include the use of a knife as a threat and a hammer made by Yoo to strike the head and face of victims. In the homicide cases involving the elderly, he attempted to disguise the crime scene as a burglary or committed arson to destroy the evidence; in the prostitute homicide cases, bodies were mutilated and buried in secret.

Generally each serial killer cas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motives, and purposes; while some serial killer cases involve similar methods, others use different methods. Unlike other crimes, serial killers' characteristics and tastes are very different, so it is difficult to explain serial killings based on a specific model.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capture modus operandi of each serial killing and for detectives to

Corresponding author : Sang Han Lee, M.D., Ph.D.

Tel : 053-420-4885, Fax : 053-422-4712

sanghan1@knu.ac.kr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m. The process of tracing and use of imagination which follows a serial killer's psychology and thought must be used to find out what kind of thoughts pushed the killer to commit the crime. In order to investigate and research difficult subjects such as serial killing, various methods, skills, and relevant knowledge should be studied, and institutional endeavors should go hand in hand with individual efforts.

Keywords : serial killer, modus operandi, profiling

I. 서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거나 파괴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나 사회현상은 수도 없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심각한 것은 바로 사회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는 인류의 가장 큰 범죄인 살인이다. 이러한 살인 사건은 살인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살자의 가족, 친족, 심지어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 더 넓게는 사회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발적인 살인 등 단순 살인은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연쇄살인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이 극에 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살인사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963명, 1999년 976명, 2000년 941명, 2001년 1,051명, 2002년 957명, 2003년 998명, 2004년 1,084명, 2005년 1,061명으로 해마다 약 1,000여 명이 살해되었다.¹⁾

우리나라의 연쇄살인은 1980년대 화성연쇄살인사건(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남부 지역인 화성과 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 미해결 '성폭행 살인' 사건이다)으로부터 사회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해, 1990년대 사회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지존파 연쇄살인사건(1993년 7월 18일부터 1994년 9월 15일까지 사업가 부부를 납치 살해한 것을 비롯해 배신한 조직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암매장하거나 사체를 소각장에서 태운 사건)으로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20명이나 살해한 유명철 연쇄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떨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쇄살인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 노인과 전화방, 출장마사지 여성 등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명철처럼 연쇄살인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관계성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살인범죄, 그 중에서 연쇄살인범죄인 유명철 연쇄살인사건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다른 사건보다 유명철 연쇄살인사건에 중점을 두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살인범죄는 그 어떠한 관계성을 파괴하는 행위보다도 가장 최종적인 단계이다. 살인범죄는 아예 그 관계 자체를 없애는 것이며 그 피해가 살인자와 피살자 사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살인범죄 중에서도 특히 연쇄살인범죄는 연루된 몇 사람의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의해 수많은 관계가 소멸되고 단순한 살인범죄보다도 그 파장이 극에 달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연쇄살인범죄 중 특히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서울이 인구집중현상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심한 도시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로서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즉,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역기능적 현상인 사회병리현상으로서의 살인범죄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거의 연쇄살인사건이나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사건보다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유명철 연쇄살인사건을 다룸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된 관계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유명철의 범행과정을 계획적 침입살인인 부유층 노인 살인사건, 무계획적 우발살인인 황학동 노점상 살인사건, 계획적 유인살인인 직업여성 살인사건으로 나누어 살피고 둘째, 범행동기·범행대상·범행시간과 장소·범행수단과 방법을 분석해 보고 셋째, 유명철 사건의 프로파일링기법에 대한 평가와 경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재료와 방법

검찰에서 기소한 17건의 21명에 대한 살인에 대해 무죄 판결된 이문동 살인사건(2004년 2월 6일 저녁 동대문 밀리오레 의류상가에 출근하는 24세의 여성이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진성각 중국음식점 부근 골목길에서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을 제외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16건의 20명에 대한 살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자료의 수집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한 “2004고합972,973,1023” 판결문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성장과정 및 연쇄살인 이전의 행적(표 1)

유영철은 1970년 4월 18일 전북 고창에서 3남 1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유영철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 귀국 후 술과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고,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고 어머니와 첩 사이를 왕복하는 두 집 살림을 하였으며, 알코올중독자로 건강이 나쁜 아버지는 기분이 나쁘거나 술에 취했을 때 아들에게 망치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 유영철이 일곱 살 때 이혼한 아버지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재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여인숙을 전전하며 근근이 살아왔다. 유영철은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공덕 2동 일대에서 보냈다. 지금의 공덕 2동 지역은 대부분이 재개발에 들어가 있지만 1980년 초반까지만 해도 달동네였다. 무허가 주택이 많았고,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많은 열악한 환경지역이었다.

1978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유영철의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교사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평범한 아이였으며 그 시절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진학 후에는 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이웃에 살며 세 아들을 데려다 기르기 시작했다. 1984년 중학교에 진학한 유영철은 말이 없던 초등학교 시절과 달리 중학생 때는 많이 밝아졌다고 한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친어머니 아래서 생활하면서 아버지와 계모의 직접적인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1학년 때는 의리도 있고 활발하였고, 2학년 때는 책임감이 있고

규칙을 잘 지켰으며, 3학년 때는 근면 성실함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사철나무라는 모임을 조직했으며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다고 한다. 특히 이 시기부터 유영철의 범죄행위가 시작된다. 중학교 2학년 때 세운상가에서 LP판을 훔쳤으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았으며, 선도부장으로 있으면서 같은 학생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학교 앞에 있는 화실에 나이 많은 여성에게 지나칠 정도의 집착을 보였다고 한다. 1987년 5월에는 색맹에다 성적도 좋지 않아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던 유영철은 예술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하고 정규 고등학교 진학에도 실패하여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직업학교인 국제공고에 입학은 하였지만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영철은 1988년 8월 23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았고, 1991년 9월 4일 특수절도죄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1993년 9월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3년 9월 21일 출소한 후, 낮에는 웨딩 습 사진기사 일을 하다가 밤에는 불법퇴폐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관 행세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갈취한 불법 음란물을 판매하다 단속되어 1995년 4월 2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화판매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절도죄로 수배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경찰관자격사칭, 공갈 범행 등을 일삼다가 1998년 2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절도죄, 공문서위조죄, 불실기재면허증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년 5월 19일 안양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이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서 경찰관자격을 사칭하여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2000년 3월 15일 구속되어 2000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년 9월 11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0년 12월 24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아내 황씨로부터 재판상 이혼을 당하게 되고 아들에 대한 양육권도

표 1. 유영철의 성장과정.

년 도	내 용
1970년	서울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출생
1885년 6월	부친 사고로 사망
1988년	국제공고 2학년 때 야간주거침입절도사건으로 소년원 수감
1991년	특수절도 혐의로 수감
이후 2003년까지	절도, 강간 등으로 7년간 수감 생활반복
1993년 6월	황모씨와 결혼
1993-95년	‘측두엽간질’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2000년 12월	교도소 수감 중 재판상이혼 당함
2003년 9월	교도소 출소
2003년 9월부터	연쇄살인 시작

빼앗겼다. 연쇄살인의 시작은 출소한 2003년 9월부터 어머니와 여동생이 살고 있는 공덕동 집을 나온 시점부터이다.

전체적인 성장배경을 살펴보면, 특히 어린 유년시절의 유영철은 단칸방에서 여섯 가족이 함께 살면서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한 아버지는 음주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부부싸움이 심하였으며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한동네에 첩을 두었고, 1985년 6월에 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했으며, 둘째형은 정신질환으로 자살했다. 유영철은 유년시절을 방임, 학대, 애정결핍 등으로 상처와 어두운 시절을 보냈다.

2. 범행과정(표 2)

2003년 9월 11일 전주교도소를 출소한 후부터 유영철은 살인 행각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유영철의 살인행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계획적 침입살인인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이다. 즉 나이 든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범죄현장을 선택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행위이다.

표 2. 유영철 사건일지.

구 분	일 자	살인 장소	피해자	사 건 내 용
계획적 침입 살해	2003. 9.24	강남구 신사동	숙대명예교수 부부 (남 72세, 여 6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대 명예교수인 이모씨 부부의 단독 주택에 침입 • 잭나이프로 위협하고 해머로 머리를 때려 살해 • 금품에는 손대지 않음
	2003. 10.9	종로구 구기동	집주인(여 85세) 며느리(여 60세) 손자(남 3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잭나이프로 위협하고 해머로 머리를 때려 살해 •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2층 방 금고안의 물건들을 흔트려 놓음
	2003. 10.16	강남구 삼성동	여 6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잭나이프로 위협하고 해머로 머리를 때려 살해
	2003. 11.18	종로구 혜화동	집주인(남 87세) 파출부(여 5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머로 머리를 때려 살해 •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곡괭이와 전지가위로 금고를 부숨 • 자신의 혈흔을 없애기 위해 방화
계획적 유인 살인	2004. 3.16	마포구 신수동 (자신의 집)	여 2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구 소재 전화방에 근무하는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 후 서강대 도서관 뒷산 등산로 나무 밑에 암매장
무계획 우발 살인	2004. 4.13	동대문구 황학동	비아그라와 음란물 판매상 (44세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을 사칭하여 사건을 무마해준다며 돈을 강취하려다 자신의 신분이 발각 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의 승합차 내에서 잭나이프로 온몸을 찌르고 해머로 머리를 때려 살해 • 자신의 혈흔을 은폐하기 위해서 차량 방화
계획적 유인 살인	2004년 4-5월 중순	마포구 노고산동 (자신의 집)	여 20-30대 초반	서대문구 소재 전화방에 근무하는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 후 봉원사 주변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뒤편에 암매장
	2004년 5월 중순	상동	여 25세	서대문구 소재 pc방에서 인터넷으로 '조건만남' 쪽지를 보내고 있던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 후 봉원사 주변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뒤편에 암매장
	2004. 6. 2	상동	여 35세	서대문구 소재 전화방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 후 봉원사 주변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오일저장탱크 옆에 암매장
	2004년 6월 초순	상동	여 20대 후반	서대문구 소재 전화방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 후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에 암매장
	2004. 6. 9	상동	여 26세	서대문구 소재 출장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 후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에 암매장
	2004. 6. 18	상동	여 27세	서대문구 소재 전화방에 근무하는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 후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에 암매장
	2004. 6. 25	상동	여 28세	서대문구 소재 출장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 후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뒤편에 암매장
	2004. 7. 2	상동	여 26세	강남구 소재 출장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 후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에 암매장
	2004. 7. 9	상동	여 24세	서대문구 소재 출장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 후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에 암매장
	2004. 7. 13	상동	여 27세	서대문구 소재 출장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 후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에 암매장

두 번째, 부유층 대상 범죄 이후 발생하였던 무계획적 우발 살인이다. 원래 살해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무계획적으로 우연히 살해한 행위이다.

세 번째, 계획적 유인살인인 직업여성 살인이다. 본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 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내어 암매장한 행위이다.

1)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

(1) 신사동 사건

2003년 9월 24일 수요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숙대 명예교수인 이모씨 부부(남 72세, 여 68세)가 둔기에 맞은 시신으로 자신의 집에서 발견되었다(조선일보, 2003년 9월 25일). 유영철은 부근에 소망교회가 위치해 있는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뒤편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침입하여 집안의 동태를 살피면서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 끼고 잭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방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거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각 방문을 열어 2층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1층 거실로 내려와 안방문을 열어젖혔다. 유영철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이모씨에게 앉으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잭나이프로 목을 찔러 쓰러뜨린 후 재빨리 바뀌든 해머로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옆에 있던 이모씨의 부인이 장롱 속에 있는 돈을 꺼내주려 하자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해머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그때까지 살아 움직이는 이모씨의 머리를 해머로 재차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살인 후 유영철은 혹시 지문이나 발자국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치밀하게 닦은 다음 현관문 잠금 장치를 눌러 닫은 후 대문으로 빠져나왔다.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잭나이프를 두고 왔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다시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잠긴 현관문을 발로 차서 문고리를 부수고 잭나이프를 찾아 나왔다.

현장감식과 부검결과 발견된 부부의 사체 중 이모씨는 머리에 둔기로 5차례 공격을 받고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을 심하게 입은 것이 사인이었고, 목과 팔에도 칼에 찔린 상처와 골절상이 발견되어 방어와 저항을 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모씨의 아내의 경우 둔기로 머리에만 3번의 공격을 받았는데 정수리 부근에 집중되었고 다른 부위에는 공격받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혀 저항하지 못한 상태

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망시간은 오전 10시~12시 사이로 추정되었고 희미한 구두 뒷굽 자국과 지문, 모발 몇 점 등 증거도 일부 수거되었다.

(2) 구기동 일가족 피살 사건

신사동 명예교수 부부 피살 사건이 발생한지 꼭 보름 만인 10월 9일 종로구 구기동의 강모씨(여, 85세)의 단독주택에서 강모씨와 며느리 이모씨(여, 60세), 장애인인 손자(남, 35세) 등 일가족 3명이 둔기로 살해되었다(조선일보, 2003년 10월 10일).

유영철은 부근에 영광교회가 위치한 강모씨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옆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침입하여 집안의 동태를 살피면서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 끼고 잭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입구 왼편 화장실에 있던 강모씨를 발견하고 재빨리 바뀌든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후 화장실을 나와 거실 안쪽으로 가다가 숨진 줄로만 알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자 재차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내리쳤다. 다시 잭나이프를 바꿔 들고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던 중, 인기척에 놀라 2층 계단을 통해 1층 거실로 내려오던 며느리 이모씨의 목에 잭나이프를 들이대고 1층 거실 오른쪽 소파 쪽으로 끌고 와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 차 소파 쪽에 밀쳐 넣고 배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해머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그 후 2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뒤늦게 인기척을 듣고 몇 계단 내려오던 손자의 목에 잭나이프를 들이대고 2층 복도로 끌고 올라와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후 두개골이 부서져 뇌가 빠져 나올 정도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영철은 신사동 범행 때와 달리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마구 뒤진 흔적을 만들어 놓고 금고를 찾아 열려고 한 흔적을 남겼다. 신사동 범행과 연관성을 찾으려면 경찰의 수사망이 자기에게 향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현장감식과 부검결과 피해자들은 둔기로 얼굴과 머리에 여러 차례 가격을 당했으며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서 뚜렷한 발자국이 채취되어 곧바로 신발 종류와 제조 회사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작업에 들어갔다. 언론에서는 신사동 사건과 한데 묶어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경찰에서는 서로 다른 개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했다.

(3) 삼성동 노부인 피살사건

구기동 사건이 일어난 지 꼭 일주일 만인 10월 16일, 유모씨(여, 60세)가 자신의 단독주택의 화장실 바닥에 엎어져 피를 잔뜩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신음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조선일보, 2003년 10월 17일).

유영철은 부근에 행복교회가 위치해 있는 유모씨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단독주택 뒤편 담장을 넘어 정원에 침입하여 코팅 장갑으로 갈아 끼고 잭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1층 거실 왼쪽 화장실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의 목에 잭나이프를 들이대고 거실 오른쪽에 있는 안방 내 다용도실을 경유하여 화장실로 끌고 들어와 재빨리 바뀌든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화장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그대로 집을 빠져 나왔다. 같은 날 13:30경 유모씨가 자신의 아들에 의해 삼성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4:00경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손상이 원인이었다.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뒤진 흔적은 있으나 현금과 귀금속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만 집 뒤쪽 담장 안과 밖에서 다량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면식범이나 가족이 아닌 외부인의 침입이 있었던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현장감식 결과 같은 발자국이 안방과 거실, 화장실에서도 발견되었고, 구기동 사건 족적과 비교해 보니 일치했다. 동일범이 분명했다. 언론보도는 연쇄살인임을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채 엉뚱하게 피해자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괴롭힌다고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중앙일보, 조선일보 2003년 10월 17일자에서는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점, 목격한 둔기, 잔인한 범행수법 등을 통해 동일범 소행이라는 의견을 모두 내놓았으나 경찰은 신사동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머리에 난 상처 깊이가 4~5cm쯤인 데다 폭이 넓다는 점과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여·68)씨 목에는 깊이 2.5cm의 자상(刺傷)도 있는 것과는 달리 삼성동 사건 피해자의 상처는 길이 3cm 안팎의 1자형이고 다소 가볍고 긴 형태의 둔기에 맞은 것으로 보고 살인도구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동일범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4) 혜화동 사건

삼성동 사건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역시 주택가에 담과 마당이 있는 종로구 혜화동 단독

주택에서 침대 위에는 김모씨(남, 87세)와 방바닥에는 파출부 배모씨(여, 53세)가 불에 탄 채 사체로 발견되었다(조선일보, 2003년 11월 18일).

유영철은 부근에 혜화성당 등이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여 정원에서 집안의 동태를 살펴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 끼고 잭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2층 각 방문을 열어 2층에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을 내려오다 마주친 위 집 파출부인 배모씨 목에 잭나이프를 들이대고 안방으로 끌고 왔다. 안방 침구에 누워 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김모씨의 머리를 재빨리 바뀌든 해머로 수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배모씨가 소리를 지르며 안방바닥에 누워있던 아기를 부둥켜안자 해머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쓰러뜨린 후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거실 소파에 눕혀 놓고 포대기와 이불을 덮어놓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다. 해머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영철은 강도범의 소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2층 금고 방에 들어가 현관문 밖에 있던 곡괭이, 전지가위 등을 가지고 와 전지가위 날을 금고문 틈 사이에 끼워 넣고 곡괭이 머리로 전지가위를 내리쳤다. 그때 전지가위가 튀면서 전지가위 날에 오른쪽 가운데손가락 마디부분이 베여 금고와 방바닥에 자신의 피가 떨어지자 2층 복도 수납장에 있던 스카치테이프와 휴지로 손가락을 감아 지혈시킨 후 자신의 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를 없애 버리기 위해 집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들이 쓰러져 있는 1층 안방으로 내려와 신문지와 옷가지를 배모씨의 머리맡에 놓고 주방에 있던 라이트로 신문지와 옷가지에 불을 붙인 후 다시 2층 금고 방으로 올라와 신문지를 여기저기 뿌린 다음 신문지에 라이트로 불을 붙였다. 그 불로 피해자들의 사체 및 주택 1층 안방 내부, 2층 금고 방 내부 및 2층 복도 일부가 소실되었다. 둔기에 의한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손상과 두개골 함몰 및 뇌손상 등 공격 방법과 흉기가 동일하였고, 거실과 복도 등에서 발견된 발자국 역시 신사동을 제외한 이전의 두 사건과 일치했다. 사망 추정 시간도 오전 10시~12시, 이전 세 사건과 같았다(조선일보, 2003년 11월 25일).

피해자 집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인근 건물 입구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녹화된 테이프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자신의 상의에 피가 튀어 이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집 옷장에 걸려 있던 점퍼를 걸쳐 입은 채 유유히 걸어 내려가는 범인의 뒷모습이 찍힌 화면을 찾아낼 수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영상분석실에서 개발한 첨단 기법으로 범인의 키가 168센티미터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경찰은 CCTV 화면에 찍힌 뒷모습과 168cm의 키, 20~30대 후반의 남자, 그리고 족적 검색에서 찾은 금강제화 버팔로 캐주얼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을 찾는다는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했다.

2) 무계획 우발 살인(황학동 노점상 살인사건)

유영철은 2004년 4월 13일 밤, 동대문구 황학동 삼영빌딩 1층 백성프라자약국 앞에서 비아그라와 음란 CD를 판매하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영업을 끝내고 남은 물건들을 들고 자신의 베스트 승합차 쪽으로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음비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적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워 승합차 조수석에 태웠다.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가 유영철의 신분증을 의심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살려 두었다가는 자칫 그간의 살인 및 경찰관사칭 행각이 탄로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무렵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가 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를 봐주는 척 안심시키면서 수갑이 채워진 피해자의 두 손을 위로 올리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다른 수갑을 이용하여 조수석 등받이 쇠기둥에 연결시켜 도주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자신의 오피스텔에 들어와 해머와 잭나이프, 코팅장갑 등을 검정색 어깨걸이 가방에 넣어 승합차로 돌아왔다. 인적이 드문 신수동 소재 세강정형외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승합차를 주차시키면서 위 가방을 뗀 채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승합차 우측 옆문을 열고 조수석 바로 뒤에 올라타 코팅장갑을 낀 손으로 잭나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등을 마구 찔렀다.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뒷좌석 밑에 가로방향으로 눕혀 놓고 옷가지로 덮으려고 하였으나 숨진 줄로만 알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사력을 다해 저항하자 다시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찔르고 가방에서 꺼낸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

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²⁾

잭나이프를 피해자를 찔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배인 자신의 오른쪽 손등 상처의 피가 승합차 안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를 없애버리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승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사체에 옷가지와 신문지를 덮어놓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다시 자신의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몸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등을 닦고 옷을 갈아입은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음날 새벽 01:00경 인천 중구 복성동 소재 삼호석유주차장에 도착하여 연쇄폭발을 유발하기 위해 두 대씩 주차된 유조차량 사이에 위 승합차를 주차시켜 놓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수갑에 묶인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직전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위해 심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두 손목에 선명하게 난 수갑자국을 없애버리는 한편,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잭나이프를 두 손목을 절단하여 이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승합차 안에 있던 신문지와 옷가지를 사체 위에 올려놓고 승합차 안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사체 및 승합차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어 위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두 손목을 그 곳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월미도 횃집상가 앞 방파제 바위틈에 버렸다.

3) 직업여성 계획 살인

유영철은 전화방 도우미와 출장마사지사로 일하는 11명의 여성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여 살해 후 사체를 토막 내었다. 사체를 10개의 검정비닐로 싸고 4개의 큰 검정비닐에 나눠 담은 뒤 택시를 이용하여 마포구 대흥동 산1소재 서강대 도서관 뒷산 등산로 나무 밑(사체 1구)과 서대문구 봉원동 봉원사 주변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주변(사체 10구)에 암매장 하였다³⁾

살해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유영철은 전화로 여성들을 호출해 길거리, 여관에서 만난 뒤 컴퓨터 스캐너 장비와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조 경찰관 신분증과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수갑을 보여주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아무런 반항 없이 자기의 오피스텔에 데려갔다. 일단 집에 들어간 유영철은 여성들에게 샤워를 하게 한 후 욕실로 들어가서 해머로 머리를 가격하여 실신시키고 거버칼로 목을 잘라 즉사시킨 후 욕실에서 시신을 15~18개로 토막을 냈다. 유영철은 머리를 자른 후 옆 휴지통에 걸어놓고 시신의 피를 다 뺀 후에 토막을 내었는데, 이때 소리가

날카봐 물을 틀어서 물소리를 나게 했다. 또한 유영철은 시신을 토막 낼 때 반젤리스의 ‘콜럼버스 1492’라는 노래를 틀어놓고 사체를 잘랐다(조선일보, 2004년 9월 20일). 처음에는 쇠틀을 이용하였고 시간도 많이 걸렸으나 차츰 능숙해져 칼만 가지고도 토막을 내면서 시간도 단축하였다.

또한 유영철은 혹시라도 DNA 검사로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11명의 피해 여성들 중 단 1명과 성관계를 맺었을 뿐 나머지는 곧바로 살해하였으며,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성관계를 한 피해여성의 손가락 지문을 모두 칼로 벗겨내어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토막 낸 시신을 검정비닐로 싸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문이 남을까봐 시신을 땅에 묻은 뒤에 비닐봉지를 모두 회수하였다.

3. 검거 및 재판 과정

유영철은 2004년 7월 15일 05: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그랜드마트 뒤편에서, 출장마사지사 등 부녀자들을 유인, 감금하여 소지품을 절취하였거나 또는 그 부녀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기동수사대 1계 2반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유영철은 2004년 7월 13일 유인, 살해한 출장마사지사 피해자(여, 27세)의 아가타 손목시계 1점 및 2004년 6월경 유인, 살해한 출장마사지사 피해자(여, 28세)의 스카이 핸드폰 1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어 긴급체포 이유 등을 고지받고 절도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되었다.

유영철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절도, 감금, 위 부녀자 살인, 부유층 주택 살인사건 혐의 등에 관하여 신문을 받으면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다가 간질증세가 있는 양 발작을 하는 등 연극을 펼쳤다.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 주자 2004년 7월 16일 00:05경 기동수사대 2층 복도에서 담당 경찰관을 뒤따라 다른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1층 계단으로 내려와 정문을 통해 뛰쳐나가 도주하였다.

도주한 유영철을 체포하기 위해 기동수사대 경찰관들이 비상 소집되어 수색을 하던 중 유영철은 같은 날 11: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형제약국 앞길에서 체포되었다.

유영철은 2004년 8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2004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

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죄명으로 20명을 살해한 점이 인정되어 사형이 선고되었다. 유영철은 항소를 포기하였지만,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된 동대문구 이문동 살인사건에 대해 상소하였으나 기각되고,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1심과 동일하게 확정되었다. 현재 유영철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4. 사건 분석(표 3)

1) 범행동기

20명이나 살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유영철의 범행동기를 부자와 여성에 대한 증오, 질병과 사망에 대한 공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한다. 유영철은 절도죄로 교도소에 있을 당시 출장마사지사 일을 하던 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고 아들의 양육권도 빼앗겼다. 더욱이 2003년 9월 출소 후 출장마사지사로 일하던 김모씨와 3개월간 사귀다 청혼했으나 전과자였다 이혼남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증오심이 커지고 전처를 살해하려 했지만 전처를 살해하면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고 체포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계속 충동을 억눌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이 풀리지 않아 전처에 대한 분풀이로 전처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유흥업 종사 여성들을 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5년 6월 아버지가 사고로 숨지고 둘째형도 1994년 32세의 젊은 나이에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하자 자신도 곧 죽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세상을 비판, 막연한 복수심에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다는 충동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범행대상

일반적인 살인의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서로 면식이 있거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연쇄살인은 면식이 있거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유영철의 경우 젊은 남성보다는 살인하기 쉬운 노인과 여성 특히, 실종되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흥업소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며 저항을 하더라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을 상대로 살인을 저질렀다.

표 3.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의 분석.

구 분	신사동	구기동	삼성동	혜화동	직업여성
피해자	부유층 노인	부유층 노인, 장애인 손자	부유층 노인	부유층 노인, 파출부	출장마사지사, 전화방도우미 여성
범행시간	오전 10시~12시	좌동	좌동	좌동	늦은 밤, 새벽 (23:00~05:00)
범행장소	주택가 교회 부근, 마당이 있는 2층 양옥	좌동	좌동	주택가, 마당이 있는 2층	자신의 오피스텔
침입방법	담을 넘어 현관으로 침입	좌동	좌동	좌동	전화로 유인
범행방법	해머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	해머로 얼굴과 머리에 여러 차례 가격	해머로 머리를 가격	해머로 두부 및 안면부에 여러 차례 가격	해머로 두부 및 안면부에 여러 차례 가격
사 인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좌동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손상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범행도구	해머(약4kg), 잭나이프(약 15cm), 세무, 코팅 장갑	좌동	좌동	좌동	해머, 쇠톱, 거버칼
독특한 흔적·행동	뒤진 흔적, 현금은 그대로 남겨 둠	좌동	좌동	금고를 부수려고 한 흔적, 방화, 점퍼를 훔쳐 입음	사체를 토막 내어 암매장, 지문을 도려냄
이동방법	대중교통과 도보로 추정	좌동	좌동	좌동	.
증거	구두 뒷굽	260mm (금강제화 버팔로 캐주얼화)	좌동	좌동	.

피해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부유층 주택 살인의 경우 신사동 사건의 이모씨(72·남)가 숙대 명예교수, 혜화동 사건의 배모씨(53·여)가 파출부였고, 나머지 6명은 전업주부이거나 직업이 없었다. 황학동 사건의 경우는 비아그라와 음란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인이었으며, 직업여성 살인의 경우는 출장마사지사와 전화방도우미였다.

피해자의 수는 신사동 사건 2명(72·남, 68·여), 구기동 사건 3명(85·여, 60·여, 35·남), 삼성동 사건 1명(60·여), 혜화동 사건 2명(87·남, 53·여), 황학동 노점상 사건 1명(44·남), 직업여성 사건 11명(20·30대 여성) 등 총 20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4명, 여성 16명이고, 발생 건수별 피해자수는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 4건에 8명, 황학동 노점상 살인 1건에 1명, 직업여성 살인 11건에 11명 등 총 16건의 범행에 20명이 살해되었다.

3) 범행 장소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 살인자는 범행장소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그 이유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지속적인 살인을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유영철은 주택 살인의 경우 강남구 신사동, 삼성동 및 종로구 구기동, 혜화동의 부유층 노인이 사는 단독주택으로 담장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범행 장소를 강남권과 강북권을 두 번에 걸쳐 왕복하고 있다. 전화방도우미와 출장마사지사 등 직업여성을 살해할 때에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왕래가 거의 없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범행 장소로 택했고, 사체를 토막 내어 암매장 하였다(그림 1).

부유층 주택 노인살인과 인천 월미도에서의 차량방화(사체소회)사건, 동대문구 이문동 살인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었고(그림 2), 유영철이 체포된 후 자백으로 인천 월미도 차량방화사건은 황학동 노점상을 살해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11명의 직업여성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것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문동 살인사건은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다. 최종 확인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의 범행 장소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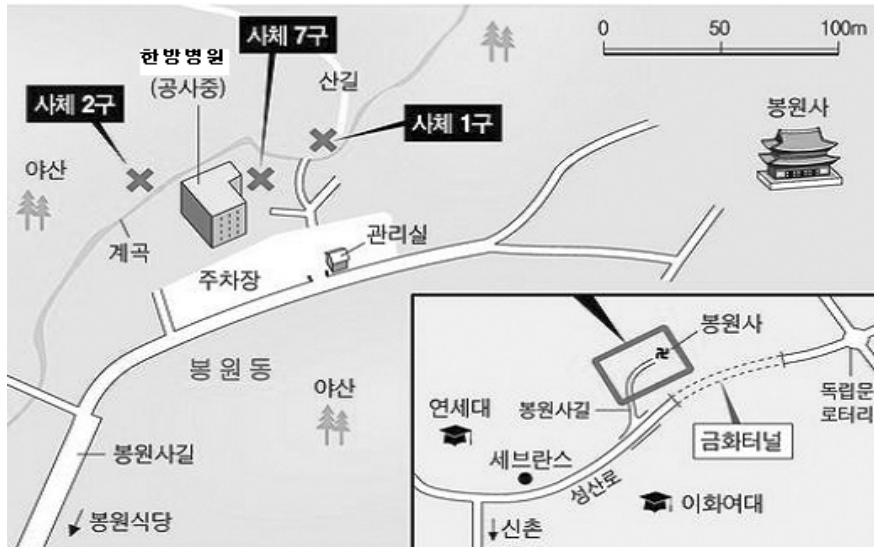


그림 1. 직업여성 사체 암매장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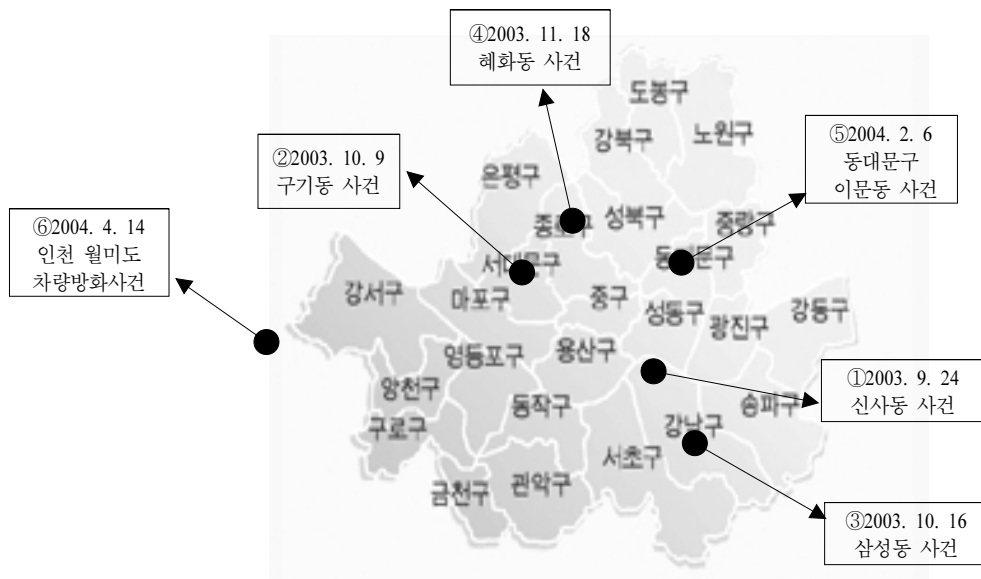


그림 2.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발생장소 (경찰이 발견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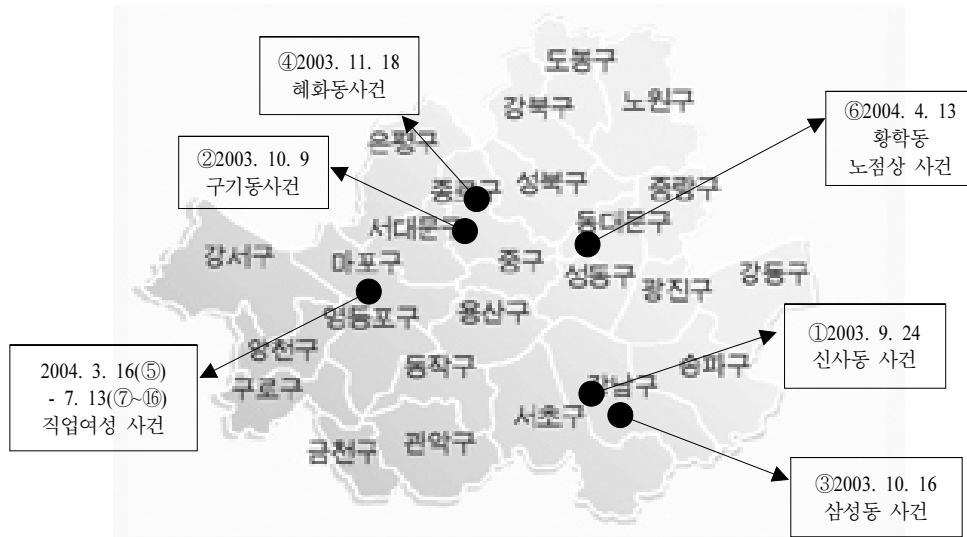


그림 3.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발생장소(최종 확인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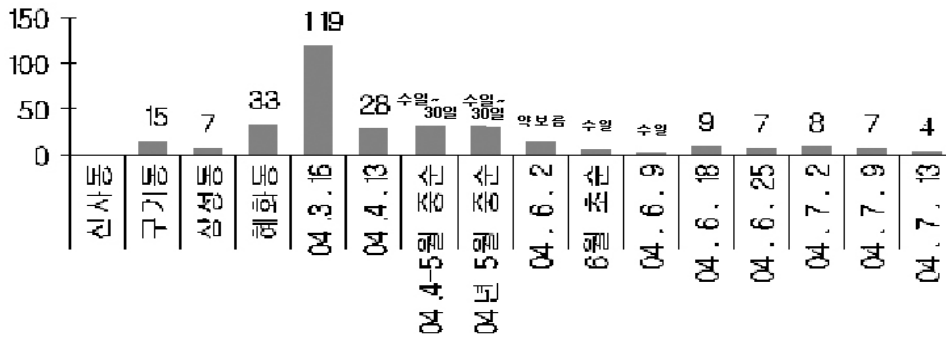


그림 4.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발생간격

4) 범행 시간(그림 4)

범행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인적이 드문 식사시간 이라든가 사람의 활동이 잦은 시간을 피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부유층 노인살인의 경우 오전 10~12시 사이, 직업여성 살인의 경우는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23:00~05:00)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발생간격을 살펴보면 신사동-구기동 사건 15일, 구기동-삼성동 사건 7일, 삼성동-혜화동 사건 33일, 혜화동-직업여성(2004년 3월 16일) 사건 119일, 직업여성-황학동 사건 28일, 황학동-직업여성(4~5월 중순) 사건 수일~30일, 직업여성-직업여성(5월 중순) 사건 수일~30일 직업여성-직업여성(6월 2일) 사건 약 15일, 직업여성-직업여성(6월 초순) 사건 수일, 직업여성-직업여성(6월 9일) 사건 수일, 직

업여성-직업여성(6월 18일) 사건 9일, 직업여성-직업여성(6월 25일) 사건 7일, 직업여성-직업여성(7월 2일) 사건 7일, 직업여성-직업여성(7월 9일) 사건 5일, 직업여성-직업여성(7월 13일) 4일 등 첫 번째 살인사건인 2003년 9월 24일부터 마지막 살인사건인 2004년 7월 13일까지 총 293일 간에 걸쳐 살인이 이루어졌다.

부유층 주택 노인살인 이후 약 석 달간 범행이 발생하지 않아 부유층 주택 살인의 각 사건보다 발생간격이 길었다. 이는 유영철의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다음 살인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여성 살인의 경우 범행이 진행될수록 발생간격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유영철이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를 유인해서 살해하는 전형적인 연쇄살인에 대한 modeling에 익숙해진 것으로 보인다.

5) 범행수단과 방법

유영철이 사용한 도구는 휴대하기 쉽게 공사장에서 주운 해머에 플라스틱 손잡이를 박아 넣었다(그림 5). 이렇게 만든 해머는 가방에 넣어 보이지 않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한 목표를 가격할 때 정확하고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발견된 그림을 통해서 이러한 범행수단의 사용을 철저히 계획했다는 점이다. 사체를 암매장할 때도 새벽시간에 택시를 이용, 장사하는 사람으로 위장했고 그가 살고 있는 거주지 또한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도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정했다.

범행방법으로는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에서는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택 담을 넘을 때는 세무장갑을 끼고 담을 넘은 후에는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 끼었다. 썸 나이프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해머로 살인하는데, 이것은 유영철이 출소 후 어머니 집에서 큰 개를 칼로 찢어보았으나 피만 많이 나오고 쉽게 죽지 않은 경험에 의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머리를 가격하면 소리 없이 쓰러지는 해머를 주 살인도구로 택하게 되었다. 직업여성 살인의 경우는 해머로 머리를 1회 가격하여 기절시킨 후 거버칼로 목을 잘라 즉사시켰다.

범행 후 행동으로는 부유층 노인살인의 경우 범행 후 위장하기 위해 금품을 뒤지거나 금고를 부수려고 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화를 하였다. 황학동 노점상 살인의 경우는 살인 후 인천 월미도로 이동하여 수갑자국을 없애기 위해 손목을 절단하여 방파제 사이에 버리고, 자신의 혈흔을 없애기 위해 차량에 방화하였다. 직업여성 살인의 경우는 지문을 도려내어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사체를 토막내어 봉원사 주변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부근과 서강대 도서관 뒷산 등산로에 암매장하였다.



그림 5. 범행에 사용된 해머(약 4kg)와 넣고 다닌 가방

6) 연쇄살인단계

전체 살인단계에서 연쇄살인의 가장 특징적인 ‘심리적 냉각기’를 보인다. 각 사건별로 연쇄살인의 7단계에서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우선 부유층 주택 노인살인인 계획적 침입 살인은 심리적 준비기는 있었다 하더라도 낚시기와 구애기, 회상기가 없었다. 무계획적 우발 살해는 살해할 계획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낚시기, 구애기, 회상기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업여성 계획살인은 전형적인 연쇄살인 단계에 근거하여 행동하였다. 낚시기는 일반적으로 수동적 측면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것인 데 반해 유영철은 상대방을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전화를 이용하여 유인하였고,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이용하여 구애와 포획을 용이하게 하였다. 유영철은 일반적으로 연쇄살인범이 보이는 피해자의 공포와 경악 그리고 동정과 자비를 갈구하는 행동을 즐기지는 않았으며 순식간에 상대를 즉사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체에 대한 모욕이나 절단 등의 엽기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사체의 뇌수를 믹서에 갈아 먹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간을 잘라내고 자궁과 음부를 잘라내는 등 자신의 환상에서 추구하였던 행위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⁴⁾

회상기를 위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 사체를 토막내어 암매장하였고 어떤 피해자가 차고 있던 발찌를 소지하고 있는 등 전리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전형적인 회상기를 가졌다. 또한 모든 살인과 살인 간 일정한 냉각기간을 가진 뒤 침체가 끝나면 다시 살인을 반복하였는데 특히 직업여성 계획 살인에서는 냉각기간의 간격이 매우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범행 수법이 점차 숙달되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 찰

1. 연쇄살인의 개념과 분류

1) 연쇄살인의 개념

그동안 우리나라의 범죄 관련 학계에서 개별 학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제시된 연쇄살인에 대한 정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자료나 외국의 범죄학자, 혹은 범죄심리학자의 견해를 번역한 것으로 대동소이하다. 다만 피해자 수나 ‘성적인 동기’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선적으로 연쇄살인사건의 특징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살인(normal homicide)과 비정상적인 살인(deviant homicide)으로 분류⁵⁾해 봄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전자는 살인의 동기가 면식관계에서는 보통 분노, 모욕감, 복수감 등 감정적인 이유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이며, 비면식 관계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목적 등 수단적인 동기에 기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후자는 이와 반대로 비면식 관계에서 살인의 동기가 분노, 모욕감, 복수감 때문이고, 면식관계에서 살인의 동기가 금전적 목적 같은 수단적 동기인 경우를 뜻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전자의 ‘정상적’인 형태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살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영철의 연쇄살인은 비정상적인 살인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는 알지도 못하고 과거 만난 적도 없는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약 10개월간 반복적인 살인을 하였다. 돈이 범죄의 목적도 아니었다.

이처럼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과거 세상을 놀라게 했던 고재봉 사건(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의 이득주 육군 중령 집에 침입하여 이중령과 부인 그리고 두 자녀와 가정부 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후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 김대두 사건(1975년 8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55일 동안 전남 광산과 무안, 경기도 평택, 서울 등지에서 모두 17명을 살해한 사건), 정두영 사건(1999년 6월 2일부터 2000년 4월 8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부유층을 범행대상으로 삼아칠강회사 회장 부부 등 9명을 잇따라 살해한 사건), 우순경 사건(1982년 4월 26일 경남 의령군 공유면 토곡리 일대 시골 마을에서 의령경찰서 공유지서에 근무하던 우범곤(禹範坤·당시 27세) 순경이 만취 상태에서 지서와 예비군 무기고에서 수류탄 7발과 칼빈소총

2정, 실탄 180발을 들고 나와 토곡리 등 인근 5개 마을을 돌며 무고한 주민들에게 총을 무차별 난사하여 56명이 사망하고 3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지존과 사건 등과는 그 본질 면에서 구분된다. 물론, 화성 살인사건은 연쇄살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나머지 범죄들은 연쇄살인이기보다는 ‘다중살인(mass murder)’ 또는 ‘연속살인(spree murder)’⁶⁾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범죄인 살인 중에서도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다수살인(multiple killings)’이라 한다. 다수살인은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중살인(mass murder)’, ‘연속살인(spree murder)’, ‘연쇄살인(serial murder)’이 그것이다.

첫째, 다중살인은 고재봉 사건처럼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특정 장소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들을 집단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다중살인이라 부른다. 다중살인범은 다른 연쇄살인범에 비해 피나 죽음에 대한 환상 내지는 환각, 쾌락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도로 잔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

둘째, 연속살인은 우순경 사건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지만 살인의 행동들은 단절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여러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연속살인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극도의 불안함을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일종의 내적 분노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연쇄살인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살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이 필요하다.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냉각기’의 존재유무이다. 냉각기란 한번 살인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다시 저지르기까지 범행의 연속성이 끊기는 경우를 말한다. 즉, ‘연속살인’이라는 용어는 ‘여러 사람을 살해하되 그 행위들이 서로 단절됨이 없이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적인 행동들’이 사건의 본 모습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에 ‘연쇄살인’은 ‘하나하나의 살인 사건들이 각자 독립적이고 완결된 행위들인데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연결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⁷⁾. 유영철 살인사건처럼 살해할 때마다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행위 후에는 증거인멸 등 뒤처리까지 하는 등 독립적이고 완결적인 행동들이 10여 차례 반복되는 경우는 연쇄살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연쇄살인의 분류

연쇄살인의 분류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살인의 동기를 기준으로 하여 ‘망상형’, ‘사명감형’, ‘쾌락형’, ‘권력형’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⁸⁾ 첫 번째의 경우는 청각 또는 시각과 관련하여 환청, 환각, 망상이 주요원인이 된다. 이를테면, ‘살인을 하라는 소리를 하늘로부터 들었다’든가 ‘신의 계시가 있었다’고 하면서 살인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사명감형은 자신의 기준이나 신념체계에 비추어 사회에서 부도덕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집단을 선택하여 그 소속원을 범죄의 희생자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명감형은 주로 정의감이 강하거나 순결의식이 강한 사람, 자아 주체성이나 우월성이 강한 사람에게서 발견된다⁹⁾.

셋째, 쾌락형은 살인자체를 즐기면서 희열을 추구하는 유형으로서, 살인을 통하여 성적인 쾌락을 느끼거나 또는 스틸감을 맛보거나 위안을 갖으려고 하는 것이 주요 동기가 된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자를 죽이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죽이는 과정자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보통 이 경우는 살해 후 사체의 토막을 내는 경우가 많다.

넷째, 권력형은 대상자의 삶과 죽음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정복감과 힘의 우위를 성취하려고 하는 동기가 주가 되며 성적인 가학행위와 환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연쇄살인범들은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기존의 체제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한다. 이때에도 사체의 토막이 종종 수반된다.

이와 같은 유형 중에서 유영철은 사명감형, 쾌락형, 권력형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혼합형’에 해당된다고 보편될 것이다. 유영철은 부유층 자체를 사회의 부정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출장마사지사들을 사회의 “씩은 피”와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마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명의식을 갖고 살인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상 집단을 우선 선택한 후 개인을 살해한 점에서 사명감형에 가깝다. 그리고 그는 범행 전 철저한 준비,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 사체처리의 치밀성, 범행 후 언론의 보도 등을 심도 있게 주시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연쇄살인 자체를 즐기는 쾌락형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체적으로 저항이 심하지 않은 노인과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고, 평소 컴퓨터를 통하여 음란사이트를 자주 접속하고, 범행 시 필요이상의 과도한 살인을

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수를 자랑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권력형의 모습에도 해당하고 있다.

2. 연쇄살인의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외과의사 롬브로조(Lombroso)가 수많은 범죄자들을 관찰하고 내린 결론으로, 이른바 ‘생태적 범죄인’(범죄인 가운데 기회범죄인이나 걱정범죄인과는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변질징후를 가진 변종의 인간으로서 환경 여하를 불문하고 운명적으로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범죄자가 결정된다는 이론은 그렇게 일치되지 않은 견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는 남성 성염색체인 Y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돌연변이가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세계를 흥분시켰지만 일반화할 만큼 인정받지는 못했다. 이후 쌍둥이는 범죄 성향이 일치하는지, 양자의 범죄성이 친부모와 일치하는지 양부모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범죄자의 가계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범죄성이 ‘유전’된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딱히 그렇다는 결론은 얻지 못했다. 연쇄살인범들 중에도 조상들이 남달리 범죄자나 정신 질환자가 많았다든지 부모가 살인범이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눈에 띄지 않았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서 DNA 구조를 분석하고 응용하는 유전자학과 뇌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정신의학, 신경전달 물질과 체계를 연구하는 신경학 등의 발달로, 연쇄살인범 등 폭력적인 범죄자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결과들이 자주 보고된다. 뇌구조와 기능, 특정 신경 전달 물질 생성체계, 혹은 성호르몬 분비량 등이 다르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신 중 산모의 음주나 흡연, 약물 중독, 혹은 지나친 스트레스 등이 꼽히고 있다. 최근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세로토닌(serotonin)’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다. 분노, 감정을 억누려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이 보통사람보다 덜 생성되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동일한 유전자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이다(실제로 세계 최고의 의대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는 인간과 유전자 구조가 90% 일치한다는 쥐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세로토닌 생성물을 낮춘 후 보통 쥐들과 한곳에 넣어둔 결과 유전자조작으로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는 쥐가 다른 쥐를 공격하여 죽여 버리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범죄의 원

인에 대한 과학계의 대체적인 합의는 ‘유전’ 등 선천적 요인이 폭력성이나 공격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토양은 제공하지만, 어떻게 자라고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커다란 개인차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 심리적 요인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살인의 직접적인 원인은 범죄자의 심리적으로 내재된 ‘공격성의 패턴화’와 ‘내재된 일탈행동의 학습화’ 그리고 ‘이상성격’ 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연쇄살인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공격성의 패턴화

공격성이란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상해를 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공격적인 행동보다 중요하게 공격성에 대한 규범, 가치관, 신념, 그리고 태도들은 고전적 조건 형성과 모방과정을 통해 부모, 교사, 동료들에게서 학습된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공격적인 행동은 또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학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연쇄 살인인 경우는 이러한 공격성이 하나의 형태로 고정화, 즉 패턴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자극’에 의해서 서슴없이 살인을 하는 공격적 행동을 드러낸다. 때문에 대부분의 살인자를 보면 공격성이 습득할 수 있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되었으며 살인이 일어난 자극과 환경을 조사하게 되면 쉽게 그 살인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성을 드러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연쇄살인의 경우에는 시작의 단계에서는 자극에 의한 공격성이 살인으로 발생되다가 이러한 공격적 패턴이 형성되면 서슴없이 살인을 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드러내어 결국에 가서는 아무런 자극 없이도 살인을 하게 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2) 범죄자의 일탈행위와 연쇄살인

일탈(deviance)행동이란 한 사회의 행동규범을 어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행동을 뜻한다. 크게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규범위반으로서의 일탈 행위와 사회적 규정으로서의 일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범위반으로서의 일탈로는 ‘아노미 이론’을 들 수 있다. 사회에는 안락한 환경, 존경받는 직업 등과 같이, 그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으며,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사회적인 목표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성취할 만한 적절한 수단들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에 목표와 수단이 어긋나서 규범부재나 혼란의 상태에 있을 때에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규율을 깨뜨리기도 하여,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노미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규정으로서의 일탈로는 ‘차별교제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을 살필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유전되거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으로서 일탈행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학습된다는 것이다. 즉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사회의 행동 규범에 의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므로 극단적인 공격성이 포함된 행동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는 타인과는 분명한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탈행동에 방해가 되는 또는 자극제가 되는 대상을 상대로 폭행, 살인이 발생할 수 있다.

(3) 범죄자의 성격과 연쇄살인

연쇄살인자는 특히 성격이 평균에서 극단적으로 이탈되어 있다. 그들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친 애정 밀착 또는 지나친 방임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성격은 애정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되면 다른 대상을 찾아 애정 행각을 벌이게 된다. 소외감이 클 경우에는 애정의 대상자를 살해하기도 한다.

둘째, 편집증과 스토커적인 집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쇄살인범은 자신이 살인한 대상의 신체라든가 사진, 또는 범행에 사용하는 무기 등에 유달리 집착을 가진다.

셋째, 사회 규범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바로 사회 규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든가 두려움을 느끼지도 못한 채 살인을 자행하는 연쇄살인자도 있다.

넷째, 반사회적인 성격과 타협하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에 의하거나 순간적인 살인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살인행각을 벌이며 계획적인 살인을 행하게 된다.

다섯째, 타인의 자극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한다. 타인의 자극을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대방을 감금하거나 구타, 폭행뿐 아니라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3) 사회적 원인

지역사회의 환경이 범죄현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다¹⁰⁾. 살인에 대한 사회적 요인은 ‘외적 억제(External Restraint)’와 ‘폭력의 부분화(Subculture of Violence)’ 이론을 들 수 있다. Henry와 Short에 의하면, 자살과 살인 모두가 공격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나, 자살이 자신을 향한 내부지향적 공격성인 반면, 살인은 타인을 향한 외부 지향적 공격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한편, Gold는 이를 사회화과정과 연관시켜 아동기의 공격적 사회화과정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좌절되었을 때 살인을, 그리고 심리적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좌절 시 자살을 택한다고 주장하였다.

살인을 설명하기 위한 폭력성의 부분화이론은 Wolfgang의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의 살인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인적 폭행을 나쁘다거나 반사회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폭력의 부분화가 있으며, 그 부분화에서는 신체적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호소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이 어떤 자극에 대해 기대되는 부수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폭력의 부분화가 바로 빈곤지역과 흑인밀집지역에서의 높은 살인율의 원인이 된다고 이론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Wolfgang의 주장은 범죄다발지역의 사람과 살인범이 일반인과 비살인범에 비해 훨씬 폭력성에 유착되어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즉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 폭력가담자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폭력성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으며, 재소자 중 살인범이 기타 재산범에 비해 폭력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한편, 살인범죄의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주민이라고 해서 발생률이 낮은 지역의 주민보다 폭력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폭력성 부분화가 결코 하류계층의 지역사회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폭력성 문화는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류계층의 빈곤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에 비해 살인범죄에 더 많이 연루되는 이유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폭력성을 보다 문명적으로, 그리고 비공격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이 있는 반면 하류계층은 그런 것들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혹자는 세력이론(Power Theory)이라고도 부른다.

3. 연쇄살인의 단계

연쇄살인은 통상 7개 단계로 구분된다. 모든 살인이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제1단계 : 심리적 준비단계(The Aura Phase)

살인을 위한 첫 단추를 잡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발적이거나 감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라든가 연쇄살인의 경우는 살인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이다. 심리적 준비단계는 일상적 현실세계를 대체하는 환상(fantasy)이 형성되며 환상 속에서 치러지는 ‘의식’에 참여할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된다.

2) 제2단계 : 낚시질 단계(The Trolling Phase)

두 번째 단계인 낚시질 단계는 연쇄살인범에게는 매우 긴장하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박적, 열광적, 편집증적인 행동패턴을 보이는 단계이다. 평소에 지나치며 보았던 경험과 환상 및 변태적인 욕구들이 뒤섞여, 희생자를 낚아 올리기 위해 낚시대를 드리울 위치를 결정하거나 희생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단계이다. 연쇄살인범이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지하주차장, 인적이 드문 밤거리 외진 골목길, 청소년 회관, 대학의 여학생 기숙사,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장애인 시설, 한적한 시골길이나 아이들이 통학 길로 사용하는 야산 샛길 등이 있다¹¹⁾.

3) 제3단계 : 구애단계(The Wooing Phase)

연쇄살인범의 외모는 결코 혐오스럽게 생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타입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을 폭력으로 위협하여 끌고 가지 않고 오히려 마감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순진한 모습으로 유혹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범행 초기의 피해자들은 연쇄살인범을 상대로 거의 저항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협조하는 경우도 있다.

4) 제4단계 : 포획단계(Capture)

포획단계는 덮에 걸려든 피해자를 낚아채는 단계로서 피해자가 혼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시킨 채, 스스로의 심리적 흥

분감을 고조시킨다. 피해자가 결국 뒷에 걸려드는 ‘포획’ 상태에 이르게 되면 살인마의 흥분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 이 단계가 연쇄살인범이 가장 즐기는 순간이다.

5) 제5단계 : 살인(The Murder)

일단 포획에 성공한 후에는 강력한 통제와 주도권의 확보 아래 평소에 전혀 할 수 없었지만 환상 속에서 꿈꾸어 왔던 행동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음껏 즐기게 된다. 가능한 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상상해 왔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농락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이후에 마침내 살해하게 된다. 살해한 이후에는 사체에 대하여 자신이 꿈꾸어 왔던 방식대로 사체에 대한 모욕이나 절단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

6) 제6단계 : 회상기(The Totem Phase)

연쇄살인범은 죽은 희생자의 사체 일부를 지님으로써 승리감이나 자신감, 절정감을 느끼거나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트로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 때로는 살인과정을 카메라로 찍거나 비디오 녹화해 놓음으로써 자신의 연쇄살인과정을 회상한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로 경과하게 되면 토텐의 마술적인 힘은 사라져버리고, 정신적으로 극히 가라앉는 침체기로 접어들게 된다.

7) 제7단계 : 침체기(The Depression Phase)

연쇄살인범은 살인이 끝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상을 통해 자신감에 차 있다가도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신의 살인행위에서 오는 절정감을 상실하고 우울한 절정감에 시달리게 된다. 살인범은 심리적 준비단계에서부터 회상기단계까지 진행되던 일종의 환각에서 깨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리거나 스스로 학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정한 심리적 냉각기를 가진 뒤에는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살인충동에 다시 사로잡히게 된다.

4.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의 프로파일링기법에 대한 평가

1)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사건

부유층 노인에 대한 연쇄살인의 경우는 프로파일링 기법이 연쇄살인범의 용의자를 축소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

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인대상 범죄현장의 공통점에 근거하여 범인은 해머를 사용할 만큼의 힘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 그리고 해머가 사체를 강타한 방향이나 두개골이 더욱 강하게 함몰된 부분의 분석을 통해 왼손잡이 혹은 오른손잡이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대부분 부유층 노인이면서도 일정한 금품을 강탈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부유층이나 노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며, 족적을 통해 발 크기와 대략적인 신장은 얼마인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적한 낮 시간대인 오전 10~12시 사이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은 범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 혹은 야간에 일하는 직업을 가진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에 침입한 흔적이나 범행현장에 특별한 증거를 남기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과거에 주거침입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적이 있는 상습범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로파일링 기법은 유영철 사건에 있어서 전과자 중에서 두개골 파열 모습에 따라 왼손 혹은 오른손잡이로 범인을 구체화시키고, 족적을 통해 해당 발 크기와 신장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압축한 뒤, 직업이 없는 자, 그리고 교정시설에서의 심리검사에서 부유층에 대하여 심한 분노나 사회에 대하여 심한 적개심을 가진 것으로 판명된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직업여성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탓에 사건마다의 연계성 분석이 용이하지 않았고 따라서 효과적인 프로파일링은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다. 또한 범행의 특성이 피해자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하고 유기하였기에 범행현장 사체를 분석하기가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만약 유영철이 암매장한 사체들이 경찰관이나 인근 주민, 그리고 산을 오르던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사체 유기장소와 사체 훼손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범인추정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즉, 사체의 발견 지점이 마포구 대흥동 산1 소재 서강대 도서관 뒷산 등산로 나무 밑(사체 1구)과 서대문구 봉원동 봉원사 주변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주변(사체 10구)에 암매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통하여,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의 측면에서 범인은 일반적으로 반경 5km 이내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범인은 사건 현장과 인접한 서대문구나, 마포구, 종로구, 중구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잘 노출된 야산 중에서 그나마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암매장했다는 것은 현장의 지리를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체가 해머에 의해 두개골에 심한 충격을 입었고, 15~18개로 토막 내어 있었던 점, 사체가 다른 곳에서 살해된 뒤 옮겨진 점 등은 범인이 젊은 남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범인이 나이가 많다면, 여자였다면 아무리 해머를 휘둘렀다고 해도 쉽게 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사체를 절단하고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범인은 사체의 지문을 도려낼 만큼 완전범죄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범죄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체매장지 주변에서 어떠한 유류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범행과 관련된 도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범인이 완벽하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이며, 범죄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범행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측면은 범인이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전과자이거나 관련 서적이나 영상물을 탐독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범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것이다. 비교적 인적이 많은 지역에서 사체유기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야간이나 새벽에 사체를 유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발견된 사체가 많은 부분으로 절단되었다는 점과 발견된 사체에서 혈액이 응고된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사체는 어디에선가 절단된 뒤, 씻겨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체를 절단하고 씻을만한 장소는 자기 집 외에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곧, 범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범인의 주거지와 관련하여, 범인의 집이 단지 몇 세대가 모여 사는 일반적인 단독주택형 구조였다면, 대문을 같이 사용하고, 인근주민들과의 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에 더욱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피스텔, 원룸과 같은 독립된 공간이 보장된 주거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 결국 범인은 인근에 사는 젊은 남성의 전과자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피스텔 등에 독신으로 거주하는 자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강하게 가격당한 흔적으로 보아 범인은 정상인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매우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것

을 알 수 있다. 앞의 증거들로 보아 범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을 했기 때문에 폭력과 관련된 전과를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유영철의 연쇄살인 사건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는 달리 프로파일링 기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다. 다만, 사체 유기현장이 유영철의 자택이 아닌 경찰관이나 시민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범인추정이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범인은 사체 유기현장의 인근, 즉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등에 사는 폭력을 비롯한 다중의 전과경력을 가진 젊은 남자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독신으로 거주하는 사람일 것이다.”

5.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

살인사건에 대한 전통적 수사는 통상 사건현장에 있던 금품이 없어졌는지의 여부, 피해자에 대한 살상행의 잔혹성 등을 중심으로 금품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지,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범죄인지의 범죄 동기와 면식범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 수법 전과자나 인근 불량배, 가족, 친척, 애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수사와 알리바이수사를 병행하면서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영철은 경찰의 관할 지역을 넘나들면서 살인은 하되 금품에는 손을 대지 않는 특이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살인사건에 익숙해 있는 경찰은 각 사건별로 원한에 의한 살인, 인근 불량배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범행 동기를 추정하는 등 수사의 혼선이 초래되었다. 부유층 노인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친 범행 후 범인은 일정한 생각을 거친 후 황학동 노점상을 살해하였으며, 젊은 직업여성들을 살해하기 시작했다.

금전이나 개인적 원한이 전혀 없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사체나 증거 등을 철저히 은폐함으로써 사건 간의 연관성을 경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전형적인 연쇄살인 사건이면서도 전혀 다른 지역과 상이한 피해자를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경찰에게 있어서 매우 힘든 상대였다.

1) 전통적 수사방법의 한계

유영철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가장 어려웠

던 점은 지금까지의 전통적 수사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을 것이다. 부유층 노인대상 살인사건의 경우 신사동, 구기동, 삼성동, 혜화동 사건의 발생간격이 15일, 7일, 33일 순이었고 피해자가 대부분 부유층 노인이었으며, 단독 주택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의 머리를 해머로 쳐서 살해한 점, 금품이 없어지지 않은 점 등 연쇄 살인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일련의 사건들을 별개의 사건으로 간주, 동일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수사하여 결과적으로 범인에게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결과가 되었다. 경찰이 당초 9월 24일의 신사동 사건과 보름 후의 구기동 사건을 별개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이유는 신사동 사건은 강남권역에서 발생하였고 구기동 사건은 강북권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었으며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되지 않도록 개별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생존자를 전혀 남기지 않다가 혜화동 사건의 경우 갓난아이를 살려두기도 하고, 금품에 손을 대지 않다가도 금고를 열려고 부수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며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전통적으로 관할의 개념이 깊이 박혀있는 경찰은 늘 하던 대로 관할 구역을 나누고 각 경찰서별로 수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경찰의 관할 구역을 넘나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 대상자를 골라 살인 행각을 벌인 유영철의 범행 수법을 경찰의 전통적 수사 방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말았다. 게다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동기 범죄에 전혀 다른 피해대상, 즉 노인과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변화무쌍한 범행수법에 대해서는 종래의 탐문 수사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2) 공조 수사의 적시성 결여

10월 16일 삼성동 사건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캐주얼화의 족적이 구기동 현장에서 발견된 반쪽짜리 족적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자 원한에 의한 면식범 소행에 초점을 맞췄던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였고 당시 구기동 사건을 맡았던 서대문경찰서와 삼성동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가 족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한 차례 만나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삼성동 사건 한 달여 뒤 혜화동에서 둔기를 이용한 노인 살인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자 경찰은 그때서야 동일범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경찰관계관 회의(혜화동 사건 직후인 2003년 11월 하순 서울지방경찰

청 주제로 첫 대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에서는 서울경찰청 형사계장, 동대문, 서대문, 강남경찰서의 형사 수사과장 및 강력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매주 1차례씩 각 경찰서를 순회하면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각 경찰서는 범행현장 증거물과 수사내용을 공유하고 수사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통화내역 수사상황, 족적과 관련하여 캐주얼화 구매내역 확인, 시내버스, 지하철 등 교통카드 내역확인, 정신병력자 현황 확인 등 각 경찰서별로 업무를 분담하였다)를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공조수사체제를 갖추었으나 네 차례에 걸친 살인행각으로 8명이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고 각 관할 경찰서가 제각각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유영철은 서울 전역을 누비며 또 다른 범행대상을 모색하고 있었다.

3) 연결고리에 대한 지속적인 실수

유영철에 의한 여성들에 대한 살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 중에 특정 직업여성들에 대한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경찰은 유흥업소 여성들은 자주 연락을 끊고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여, 실종인들 간의 연결 가능성에 크게 주목하지 않아 소위 ‘사건 간 연결 실패’(linkage blindness; 실종자 또는 살인자와 연쇄 살인범과의 연결을 짓지 못하는 경찰의 무능력을 linkage blindness라고 한다)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후에 확인된 바로는 실종 신고 기록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절도혐의로 검거된 유영철에 대해, 전과는 많았지만 폭력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 절도범으로 생각하여 연쇄 살인사건과의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한 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하였고, 무엇보다도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침으로써 직업여성 살인이 발생한 것은 경찰의 기본적인 치명적 실수였다. 이처럼 치밀하고 특이한 범죄 수법을 구사한 유영철에 대하여 경찰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으며, 우연히 손에 쥔 범인과의 연결 고리를 제대로 잇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연쇄살인범이라고 자백한 혐의자를 놓치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참고문헌

1. http://www.police.go.kr/pds/pds_07_totalpds_04_01_jsp.
2.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3.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4. 조선일보, 2004년 8월 14일.
5. Scott Decker, "Deviant Homicide : A new look at the role of motive and victim-offender relationship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33, No.
6. Erick Hickey, *Serial Murderers and their Victims* (Stamford, CT : Wadsworth, 2002), pp. 15-16.
7. 표창원, '한국의 연쇄살인', 랜덤하우스중앙, 2005, p. 51.
8. Holmes, R. M., & Holmes, S. T., *Serial murder* Thousand Oaks, CA : Sage, 2002, pp. 110-115.
9. 최영인·염건령, "범죄프로파일이론과 연쇄살인의 프로파일링", 백산출판사, 2005.
10.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2001, p. 239.
11. 오운성, "연쇄살인범에 대한 효율적 수사방안의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10권 2호, 2004, p. 536.

초 록

연쇄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관련분야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유영철의 범행과정을 계획적 침입살인인 부유층 노인 살인사건, 무계획적 우발살인인 황학동 노점상 살인사건, 계획적 유인살인인 직업여성 살인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둘째, 범행동기·범행대상·범행시간과 장소·범행수단과 방법을 분석해보고 셋째, 유영철 사건의 프로파일링기법에 대한 평가와 경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첫째, 범행동기는 부자와 노인, 여성에 대한 증오, 질병과 사망에 대한 공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범행대상은 부유층 주택 노인, 노점상, 출장마사지와 전화방 도우미로 일하는 직업여성이었고, 피해자 수는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 4건의 범행에 남성 3명, 여성 5명이고, 노점상 살인은 1건의 범행에 남성 1명이며, 직업여성 살인은 11건의 범행에 여성 11명으로 총 16건에 20명이 살해되었다. 셋째, 범행시간은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났고, 직업여성의 경우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일어났으며, 범행 장소는 부유층 노인 살인의 경우는 강남구 신사동·삼성동, 종로구 구기동·혜화동의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100평 이상의 주택이었고, 직업여성 살인의 경우는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이었다. 마지막으로 범행수단과 방법은 잭나이프는 위협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해머로 두부 및 안면부를 가격하여 살해하였으며,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강도로 위장하거나 방화를 하였고, 직업여성의 경우 사체를 토막 내어 암매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쇄살인사건에 있어서 각각의 연쇄살인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나 동기, 목적, 과정이 모두 다르며 동일한 수법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연쇄살인은 살인범의 특성이나 취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화된 모델만을 가지고 연쇄살인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된다. 각각의 연쇄살인 사건마다 나타난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연쇄살인범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심리적으로나 사고적으로 따라 가보는 추적상상의 과정이 반드시 같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연쇄살인과 같이 어려운 대상을 연구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과 기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개별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